

# 유통·화장품 한 주 딱잡기



Analyst 안지영, 황병준 6915-5675 [jyahn@ibks.com]

## 주간 유통/화장품 뉴스

### 역대급 장마에 희비 엇갈리는 유통가 (금강일보 20.8.2)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이 올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유통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음. 대전·세종·충남지역 7월 평균 기온은 22.8도(평년 24.5도)로 지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낮음. 폭염 일수(평년 2.7일), 열대야일수(평년 1.5일)는 '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제습기, 건조기 등의 매출은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7월 전자랜드 건조기와 제습기 판매량은 전년보다 각각 48%, 20% 올랐고 의류관리기 상승 폭은 388%에 달함. 5~7월 롯데하이마트에서 판매된 제습기 역시 34% 증가함. 반면 에어컨 판매량은 감소함. 전자랜드에 따르면 5~7월 에어컨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함. 더위 시작을 알린 6월, 에어컨 판매량은 30% 늘었지만 5월과 7월 각각 30%, 28% 줄어든 영향.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긴 장마로 실내 습도 관리에 도움을 주는 가전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제습기와 의류 건조기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따라 구매 금액의 10%도 환급받을 수 있어 알뜰한 소비를 할 수 있고, 의류 관리기 역시 겨울철만이 아닌 사계절 판매 가전제품으로 올라섰다"고 밝힘.

### 편의점 배달 더 빨라진다... '걸어서 배송' 서비스 도입 (매일경제 20.8.2)

최근 편의점들이 배달앱 업체와 손잡고 오토바이를 이용한 1시간 내 근거리 배송을 선보인데 이어 이제는 더 가까운 거리에서 배달원이 걸어서 각종 먹거리를 배달하는 '도보배송' 서비스를 도입함. 소비자는 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빨리 물건을 받아볼 수 있고, 자신이 잘 아는 동네에선 직접 배달원으로 일하는 것도 가능.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최근 도보 배달 전문업체인 엠지플레이팅과 업무제휴를 맺고 이달중 서울 지역 500여 CU매장에서 근거리 도보 배달 서비스를 시작함. 기존에 배달 서비스는 배송 업체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라이더들이 오토바이를 통해 상품을 배송했음. 배달 가능한 지역은 매장 반경 1.5km로 도보 배송 서비스는 배송 반경이 1km로 이보다 작음. 최소 구매 금액(1만원)과 배달 가능 시간대(오전 11시~밤 11시), 배달 이용료(3000원)는 기존 오토바이 배송과 같지만 주말이나 출·퇴근시간 같은 피크타임이면 종종 지연되는 오토바이 배달과 달리 교통체증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거리가 짧아 배달시간은 더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오토바이 배달은 1시간 내외로 이뤄지는데, 도보 배송은 가까운 거리일 경우 20~30분이면 가능. 편의점 GS25와 슈퍼마켓 GS더프레시의 본사인 GS리테일은 아예 자체 플랫폼까지 만들어 본격적으로 도보 배달 시장에 뛰어들 전망. 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6월 특허청에 자체 배달서비스명인 '우리동네 딜리버리'와 그 줄임말인 '우달'의 상표권을 출원함. GS리테일은 오는 17일 배달원이 배달 업무를 배정받을 수 있는 안드로이드용 앱을 내놓고 31일부터 서울 강남·강서·관악구에서 먼저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짐. 업계에서는 GS리테일이 우선 자사 편의점과 슈퍼마켓에 도보 배달을 적용하고, 향후 다른 제휴사에도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 '쿠팡페이' 8월 1일 분사... 사용자 확대에 승패 갈릴 듯 (뉴데일리경제 20.7.31)

3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8월 1일부터 쿠팡페이를 비롯한 핀테크 사업을 독립법인으로 분사하고 공식 출범함. 출범 후 약 1주간 안정화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전자결제서비스를 시작. 서비스나 제휴처 등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 쿠팡은 지난 4월 김범석 단독 대표 체제에서 핀테크·인사·전략 부문으로 분리해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하면서 핀테크 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함. 경인태 대표를 핀테크 부문 수장으로 선임하고, 5월에는 간편결제 서비스 명칭을 기존의 로켓페이에서 쿠팡페이로 바꿈. 음식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의 결제수단으로 쿠팡페이를 장착해 오프라인 매장으로 확장함. 쿠팡페이의 승패를 가를 승부처로는 범용성이 꼽힘. 쿠팡페이는 쿠팡 단일몰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던 경쟁 서비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스마일페이 등은 쿠팡페이와 달리 온·오프라인에서 많은 사용자들을 두고 있음. 경쟁 서비스에 비해 뒤쳐진 사업 제휴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도 과제. 이베이코리아 스마일페이의 경우 2016년 SPC그룹 브랜드 배스킨라빈스·파리바게뜨 등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진출에 이어 최근 GS슈퍼마켓과 신라인터넷면세점에서 서비스 제공 중. 금융업체와 은행과 카드사들이 이미 내놓은 50종의 간편결제 서비스와 경쟁해야 하는 점은 쿠팡의 과제. 업계는 간편결제 브랜드별 이용률을 삼성페이, 페이코, 스마일페이, 네이버페이, 11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순서로 집계 중. 쿠팡페이 이용률은 그 뒤. 업계는 쿠팡의 후발 결제시스템 진출을 예상 중. 현재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도 추진 중으로 쿠팡도 최근 특허청에 '나중 결제'라는 상표를 등록해 관련 분야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

## 불티나던 '재고 명품' 인기도 시들...면세업계 한숨 (뉴시스 20.7.31)

31일 면세 업계에 따르면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면세점 3사가 일제히 판매하던 총 400억원어치의 재고 면세품 중 약 60%만 판매가 완료됐고 나머지 40%는 다시 악성 재고로 남은 것으로 확인됨. 인기 제품의 경우 판매 수량이 적고 사려는 사람은 많아 빠르게 품절됐지만 비인기 제품의 경우 할인율이 높아도 팔리지 않고 있음. 면세 업계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재고 면세품 판매가 가능하지만 이미 팔 수 있는 물건은 대부분 다 팔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 결국 면세 업계는 여전히 쌓여 있는 수조 원의 재고자산 처분을 위해 '다이공(중국 보파리상)'에 기댔 수밖에 없는 상황. 실제로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 1113억여원으로 지난 5월보다 9.3% 증가했는데 다이공의 영향이 매우 컸음. 특히 지난달 매출 가운데 80%가 화장품 판매에서 이뤄졌는데 여전히 중국 내에서 한국 화장품을 찾는 이가 많은 덕분.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이공들이 면세품을 비교적 쉽게 구매할 수 있던 것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3자 국외 반송 때문인데 이 역시 오는 10월이면 끝난다는 점. 면세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여전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항임대료와 3자 국외 반송 등 긴급 조치들은 곧 종료되다 보니 답답한 상황"이라며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 차원에서 3자 국외 반송 조치 등의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쿠팡이츠·위메프오 약진...요기요·배민 합병 변수? (한국경제 20.7.31)

쿠팡이츠, 위메프오 등 배달앱 후발주자들이 빠르게 시장을 넓히고 있음.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에 이어 3위를 달리던 배달통의 자리를 이들 업체가 차지함. 그동안 공고하게 유지된 배달앱 시장의 3강 구도가 깨진 것. 공공 배달앱도 향후 시장 판도를 흔들 요인으로 꼽힘. 배달앱 시장의 경쟁 상황 변화가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지난달 쿠팡이츠와 위메프오가 각각 배달앱 사용자 수 3위와 4위를 차지함. 쿠팡이츠는 월간 활성사용자 수(MAU) 55만 명, 위메프오는 38만 명을 기록함. 배달통은 5위(26만 명)로 밀림. 올해 1월만 하더라도 배달통의 MAU는 51만 명으로, 쿠팡이츠와 위메프오를 합친 수치보다 높았음. 후발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선 결과로 풀이. 쿠팡이츠는 6월 서울 전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고, 배달기사를 확보하기 위해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 위메프오는 광고비용이나 입점비용을 아예 받지 않고, 거래수수료를 5%로 낮게 받으며 입점 업체를 늘림. 이들 기업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 쿠팡이츠는 8월 서비스 지역을 경기도로 넓히고 위메프오는 오는 9월 '중개수수료 0%' 방침을 앞두고 있음. 이 같은 배달앱 시장 내 점유율 변화가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심사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두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98.7%에 달했지만 후발업체들이 치고 나오면서 우려가 다소 완화됨.

## 계류된 '브랜드 로드숍'... 화장품 성공신화 '아 옛날이여' (시장경제 20.7.31)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니스프리, 미샤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불만을 표시하며 단체행동을 준비 중. 이니스프리가맹점협의회(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본사가 온라인 채널에서 불공정 영업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함. 하지만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자 협의회는 추가적으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취합해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추가신고할 예정. 협의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할인 판촉비 불공정한 부담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에서의 공급가 차별 ▲부분별한 제품 할당 등.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이니스프리 가맹점에 국한되지 않고 최근 에이블씨엔씨의 미샤와 토니모리 가맹점들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올리브영, 락라블라 등 한 곳에서 다양한 브랜드들을 만나볼 수 있는 멀티편집숍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이동하기 시작했고, 연이어 사드 사태로 야기된 중국 관광객 감소 등은 브랜드숍에 직접적인 타격이 됨. 이와 함께 11번가, 쿠팡, G마켓 등 이커머스의 성장은 브랜드숍이 물건을 구입하러 가는 곳이 아닌 제품을 테스트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림.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됨에도 특별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신제품 출시, 이벤트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하지만 결과는 그다지 좋지 못한 상태.

### 업종코멘트(8/3-8/7)

**유통, 화장품:**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4.6% 증가함. 온라인은 6월에도 +15.9%로 두 자리 수 매출 성장률을 유지한 반면 오프라인은 -3.0%에 그침. 오프 라인 채널 별로는 SSM -14.7%, 대형마트 -5.3%, 백화점 -3.4%, 편의점 2.4%에 그침. 오프라인 채널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다중이용시설 기피 현상이 지속되며 매출 감소가 이어졌지만 감소 폭은 축소됨. 아모레퍼시픽과 호텐신라의 2Q결과 면세점의 실질적 영업중단 영향을 반영하며 쇼크에 그침. 금주는 롯데쇼핑, BGF리테일, GS리테일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

**국내외 업종 지수 및 Peer 종목군 주가 상승/하락률**

지수	증가(pt)	주간 절대 등락률(%)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KOSPI	2,249.37	2.22%	롯데쇼핑	-0.38	-3.35	-2.01	현대홈쇼핑	-3.04	-6.77	-5.31
KOSDAQ	815.30	2.58%	현대백화점	-0.17	-1.32	6.04	웅진코웨이	2.95	0.39	6.23
유통업	324.85	0.60%	신세계	0.48	-3.02	-5.22	SK네트웍스	0.59	-0.78	7.27
주요 환율	현재가	등락률(%)	이마트	3.17	0.88	8.06	아모레퍼시픽	1.53	0.61	-0.90
KRW/USD	1,191.40	-0.59	롯데하이마트	-0.49	-4.84	-20.78	LG생활건강	3.63	1.93	1.86
KRW/JPY	1,137.32	1.38	호텔신라	0.29	-1.40	-0.99	코스맥스	2.54	-3.93	-5.11
KRW/CNY	170.26	-0.46	신세계인터내셔널	-0.34	-4.82	-5.73	한국콜마	6.37	3.09	9.74
			GS리테일	-2.55	-6.40	-5.76	애경산업	0.22	-1.09	-3.62
			BGF리테일	-2.73	-3.49	-10.43	코스메카코리아	7.31	-0.71	16.74
			GS홈쇼핑	-0.47	-1.21	-2.93	클리오	3.17	-4.02	-8.91

자료: Quantwise, IBK투자증권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시세이도	-11.6	-12.9	-13.4	PROYA	12.6	15.4	6.8	까르푸	-0.4	-2.2	-2.6
로레알	-0.7	-2.5	-4.6	노드스트롬	-9.1	-9.2	-11.7	텐센트	1.1	2.5	3.0
상해자화	7.5	4.8	0.5	막스&스펜서	-0.4	-3.9	-7.0	알리바바	0.8	1.6	12.3
P&G	4.1	4.4	8.5	이온 몰	-5.8	-6.1	-9.1	JD닷컴	4.8	2.7	3.9
고세	-11.8	-13.2	-17.8	세븐&홀딩스	-7.7	-8.8	-7.1	VIP샵	11.5	8.5	11.2
에스티로더	3.0	-0.2	3.1	아마존	5.2	6.8	9.5	코스트코	11.9	10.6	21.3
LVMH	-8.1	-10.6	-8.7	월마트	-1.4	-1.8	8.5	이베이	0.3	-4.9	1.7
ULTA	-5.3	-4.9	-5.2	테스코	-1.6	1.2	-2.1	중국국여	18.8	29.2	46.3
MARUBI	3.0	-3.4	-8.3	타겟	1.8	3.5	5.7	라쿠텐	-2.9	-1.4	0.9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글로벌 대표 소비재의 투자지표**

화장품 글로벌 피어	시세이도	로레알	상해자화	P&G	고세	에스티로더	LVMH	ULTA	MARUBI	PROYA
현재가(현지통화)	5,850.00	283.00	46.55	131.12	10,600.00	197.54	366.75	192.99	76.96	187.51
시가총액(백만USD)	22,109	186,627	4,480	324,606	6,068	71,114	218,391	10,868	4,424	5,411
매출액 (백만USD)	2018 9,918	31,816	1,080	66,832	2,738	13,683	55,307	5,885	238	357
	2019 10,381	33,443	1,107	67,424	2,969	14,801	60,083	6,700	261	441
	2020 8,801	33,479	1,083	70,150	3,079	14,312	52,747	7,386	286	558
	2021 10,524	36,230	1,221	72,618	2,752	15,202	62,645	6,529	340	718
영업이익 (백만USD)	2018 982	5,689	87	13,363	437	2,055	11,639	785	68	57
	2019 1,044	5,935	109	14,273	510	2,564	12,589	853	88	69
	2020 516	5,696	87	15,594	402	2,252	9,039	895	98	86
	2021 1,016	6,641	98	17,074	183	2,608	13,127	347	118	112
순이익 (백만USD)	2018 556	4,601	82	9,750	276	1,108	7,505	555	63	43
	2019 675	4,198	81	11,767	342	1,935	8,028	656	74	55
	2020 267	4,614	70	13,002	269	1,620	5,236	696	84	70
	2021 655	5,251	84	13,910	119	1,918	8,377	263	101	91
PER (배)	2018 44.8	28.9	33.7	18.7	41.5	31.6	20.4	26.1	N/A	30.6
	2019 42.3	39.6	37.3	29.3	15.8	37.7	29.1	17.7	58.5	97.8
	2020 75.2	39.6	63.4	26.4	21.0	44.1	41.6	16.1	53.0	77.5
	2021 33.2	35.3	52.5	24.4	48.7	37.0	26.0	39.8	44.1	59.6
ROE (%)	2018 14.1	15.1	9.7	18.1	17.6	24.4	20.7	33.4	35.6	18.2
	2019 15.5	13.3	9.2	21.2	19.6	41.0	20.8	35.5	23.2	19.5
	2020 6.0	13.2	7.4	32.3	13.4	38.6	12.2	38.0	18.6	20.4
	2021 13.2	14.1	8.2	29.9	5.6	42.2	17.7	15.5	18.8	21.9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자료: Bloomberg

## 글로벌 대표 소비재의 투자지표

유통 글로벌 피어	노드 스트롬	맥스&스펜서	다카시 마야	이온 몰	세븐&홀딩스	아마존	월마트	테스코	타겟
현재가(현지통화)	13.69	94.98	700.00	1,257.00	3,206.00	3,164.68	129.40	217.10	125.88
시가총액(백만USD)	2,150	2,426	1,176	2,702	26,851	1,585,155	366,455	27,851	62,942
매출액 (백만USD)	2018 15,478 2019 15,860 2020 15,466 2021 12,321	2018 14,194 2019 13,624 2020 12,405 2021 11,762	2018 7,960 2019 7,670 2020 8,365 2021 6,604	2018 2,587 2019 2,834 2020 3,008 2021 2,781	2018 43,162 2019 49,887 2020 61,628 2021 56,453	2018 232,887 2019 280,522 2020 364,033 2021 430,125	2018 500,343 2019 514,405 2020 524,810 2021 546,307	2018 75,384 2019 84,391 2020 79,343 2021 78,189	2018 72,714 2019 75,356 2020 77,260 2021 81,921
영업이익 (백만USD)	2018 926 2019 837 2020 839 2021 -461	2018 208 2019 391 2020 754 2021 416	2018 317 2019 241 2020 233 2021 -71	2018 442 2019 480 2020 571 2021 297	2018 3,516 2019 3,727 2020 3,896 2021 3,368	2018 12,421 2019 14,541 2020 19,625 2021 31,665	2018 20,437 2019 21,957 2020 21,750 2021 21,773	2018 2,411 2019 3,498 2020 3,624 2021 3,268	2018 4,224 2019 4,110 2020 4,678 2021 3,720
순이익 (백만USD)	2018 437 2019 564 2020 537 2021 -418	2018 34 2019 55 2020 394 2021 146	2018 212 2019 149 2020 147 2021 -125	2018 274 2019 304 2020 316 2021 32	2018 1,626 2019 1,838 2020 1,953 2021 1,497	2018 10,073 2019 11,588 2020 21,856 2021 29,702	2018 9,862 2019 6,670 2020 14,283 2021 14,271	2018 1,584 2019 1,680 2020 2,027 2021 1,670	2018 2,914 2019 2,937 2020 3,281 2021 2,516
PER (배)	2018 16.9 2019 12.1 2020 4.0 2021 N/A	2018 168.9 2019 111.6 2020 5.7 2021 13.8	2018 16.1 2019 15.6 2020 9.2 2021 N/A	2018 16.7 2019 12.3 2020 8.4 2021 87.1	2018 21.8 2019 21.3 2020 13.3 2021 18.0	2018 74.5 2019 80.3 2020 70.7 2021 54.3	2018 24.1 2019 42.4 2020 25.9 2021 25.6	2018 16.9 2019 17.0 2020 12.7 2021 15.6	2018 15.6 2019 13.2 2020 19.8 2021 24.4
ROE (%)	2018 47.3 2019 61.0 2020 57.0 2021 -56.8	2018 0.8 2019 1.5 2020 11.6 2021 2.9	2018 5.6 2019 3.7 2020 3.6 2021 -3.8	2018 8.4 2019 8.9 2020 8.8 2021 1.5	2018 7.6 2019 8.2 2020 8.3 2021 5.8	2018 28.3 2019 21.9 2020 19.3 2021 25.0	2018 12.7 2019 8.9 2020 18.6 2021 16.4	2018 14.3 2019 10.6 2020 11.9 2021 9.4	2018 25.8 2019 25.6 2020 27.9 2021 20.3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자료: Bloomberg

유통 글로벌 피어	까르푸	텐센트	알리바바	JD닷컴	VIP샵	코스트코	이베이	중국국여	라쿠텐
현재가(현지통화)	13.50	534.00	251.02	63.79	22.77	325.53	55.28	243.00	965.00
시가총액(백만USD)	13,015	660,228	673,417	99,202	15,311	143,729	38,689	68,020	13,080
매출액 (백만USD)	2018 88,339 2019 83,836 2020 84,717 2021 86,440	2018 47,308 2019 54,627 2020 67,807 2021 83,161	2018 37,825 2019 56,163 2020 70,732 2021 94,848	2018 69,900 2019 83,527 2020 102,103 2021 122,444	2018 12,788 2019 13,909 2020 13,909 2021 15,704	2018 141,576 2019 152,703 2020 164,075 2021 173,996	2018 10,746 2019 10,800 2020 10,701 2021 11,411	2018 7,112 2019 6,508 2020 6,508 2021 10,080	2018 9,978 2019 11,595 2020 13,721 2021 15,683
영업이익 (백만USD)	2018 956 2019 1,184 2020 2,494 2021 2,704	2018 13,978 2019 16,125 2020 20,745 2021 25,073	2018 10,476 2019 8,508 2020 13,333 2021 18,457	2018 -396 2019 1,302 2020 1,555 2021 2,744	2018 366 2019 1,033 2020 1,033 2021 1,212	2018 4,480 2019 4,737 2020 5,145 2021 5,395	2018 2,222 2019 2,321 2020 3,314 2021 3,595	2018 812 2019 773 2020 773 2021 1,586	2018 1,587 2019 734 2020 -283 2021 -28
순이익 (백만USD)	2018 -663 2019 1,264 2020 1,177 2021 1,303	2018 11,910 2019 13,510 2020 17,338 2021 21,636	2018 9,687 2019 13,081 2020 18,382 2021 23,511	2018 -377 2019 1,764 2020 2,009 2021 3,143	2018 322 2019 886 2020 886 2021 1,070	2018 3,134 2019 3,569 2020 3,743 2021 4,085	2018 2,530 2019 1,786 2020 2,599 2021 2,821	2018 468 2019 525 2020 525 2021 1,056	2018 1,289 2019 -293 2020 -300 2021 -96
PER (배)	2018 N/A 2019 373.8 2020 10.9 2021 10.0	2018 33.1 2019 34.1 2020 38.7 2021 31.3	2018 45.1 2019 60.9 2020 35.4 2021 29.8	2018 N/A 2019 51.7 2020 48.7 2021 31.3	2018 12.7 2019 14.3 2020 17.6 2021 14.7	2018 33.3 2019 36.0 2020 38.1 2021 35.0	2018 15.7 2019 14.1 2020 15.5 2021 14.0	2018 38.0 2019 44.3 2020 126.6 2021 63.3	2018 7.0 2019 N/A 2020 N/A 2021 N/A
ROE (%)	2018 N/A 2019 11.8 2020 9.5 2021 9.7	2018 27.2 2019 24.7 2020 22.4 2021 22.2	2018 19.9 2019 N/A 2020 21.7 2021 15.5	2018 -4.5 2019 17.2 2020 10.3 2021 14.9	2018 13.5 2019 23.5 2020 23.5 2021 21.1	2018 26.6 2019 26.1 2020 22.8 2021 21.8	2018 35.3 2019 39.0 2020 118.2 2021 -42.2	2018 20.4 2019 16.0 2020 16.0 2021 26.2	2018 19.5 2019 -4.2 2020 -3.3 2021 -0.1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자료: Bloomberg